

【비평논문】

서구학계의 10~14세기 “정복왕조사” 연구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6권(*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을 중심으로—

윤영인*

차례

- I. 서구학계의 정복왕조사 연구를 대표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6권
- II. 『중국사』 제 6권의 집필진과 주요 내용
- III. “중국사”의 정복왕조와 동아시아 국제질서
- IV. 정복왕조의 정체성: “한화”와 불교
- V. 『중국사』 제 6권의 한국사 인식
- VI. 탈“중국”의 정복왕조사

국문초록

서구학계 10-14세기 정복왕조사 연구의 대표적 성과로는 단연 『케임브리지 중국사』(이후 『중국사』로 줄임)의 제 6권을 꼽을 수 있다. 1994년 출간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당대 최고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기존의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서이자 개설서로 역사 전공자와 일반 독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족왕조에 비해 비교적 소홀시 되어온 거란, 대하, 여진, 그리고 몽골제국 등 “외부정권”(alien regimes)들을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한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면서도 정복왕조의 역사를 “중국사”의 틀 안에서 접근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를 단선적(單線的) 발전의 틀 혹은 “한화”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접근할 때 북방민족의 역사는 종종 왜곡되었다. 북방민족과 정복왕조를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 접근하여 “소수민족”이자 역대 왕조사의 한 시대적 단계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결국 거란, 탕구트, 여진, 몽골족을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소수민족”으로 인식하는 현재주의적 역사관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복

* 영산대학교 성신교양대학 교수.

왕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이라는 시대착오적 경계에 갇힌 기존의 정복왕조사 연구와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의 요대, 하대, 금대, 원대가 아닌 세계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란, 탕구트, 여진, 그리고 몽골 중심의 역사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6권, 정복왕조, 거란 요, 여진 금, 탕구트 대하[서하], 몽골 원, 한화

I. 서구학계의 정복왕조사 연구를 대표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6권

최근 서구학계의 정복왕조사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¹ 출간된 지 이미 25년이 넘은 『케임브리지 중국사』(이후 『중국사』로 줄임)의 제 6권을 다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이 책이 10-14세기 북방민족²이 중원³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복하면서 세운 거란,⁴ 금, 대하[“서하”],⁵ 그리고 몽골 원제국의 역사

- 1 윤영인 외 7인,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2 여기서 “북방민족”은 “한족”과 대비되는 초원과 만주 지역에 거주한 여러 “부족” 들을 가리키며 종종 호(胡) 혹은 적(狄)으로 기록되었다. 북방민족들은 그들의 군주를 칸(카간 혹은 한)으로 불렀고, 10진수 단위의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원적 통치체제의 다민족·다언어 제국을 세웠다.
- 3 “중국”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종종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용어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복합적인 의미의 “중국” 대신 “중원”을 사용하였다. “중원” 역시 본래 한족 문화의 중심지인 화북 평원을 의미하지만 간혹 넓은 의미로 “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만주(요동), 신강, 티베트, 몽골 등 “변방”에 대비되는 한족의 주요 거주 지역 혹은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한 역사적 공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 4 이 논문에서는 거란족이 세운 제국의 명칭으로 “거란”[키타이]을 사용하였다. 보통 거란을 부족의 이름으로, “요”(遼는 거란족이 세운 제국의 국호로, 그리고 “요”가 망한 후 그 유민들이 중앙유라시아로 이주하여 세운 나라를 “카라키타이” 혹은 “서요”라고 한다. 송나라 문헌에는 거란이 “契丹”(大契丹)과 “遼”(大遼)를 번갈아 국호로 “바꾸었다고” 하였지만 『遼史』에는 947년 거란 태종이 나라이름을 “大遼”라고 정했다는 기사가 전부이며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기록들에서는 국호가 시종일관 “키타이” 혹은 “카라키타이” [“哈喇契丹” 혹은 “大契丹”, “契丹國”, “契丹” 등]로 표기되었다(刘浦江(2001), 「辽朝国号考释」, 『历史研究』, 2001년 6기, pp. 40-43; 刘凤翥(2006-2), 「从契丹文字的解读谈辽代契丹语中的双国号—兼论“哈喇契丹”」, 『东北史研究』, 2006년 第2期; Biran, Michal,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5-17).
- 5 서하(西夏)라는 명칭은 중원의 서쪽에 위치하였다는 의미로 몽골제국시기에 편찬된 『遼史』

에 대한 서구학계의 대표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존의 주요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서이자 개설서로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와 일반 독자들은 물론 중국학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⁶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중국사』 프로젝트는 기원전 221년 진나라의 건국에서 1980년까지를 근 2200년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미국학계에서 “중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버드대학의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영국의 트위철티(Denis C. Twitchett)가 주도하여 1960년대에 시작하였다.⁷ 『중국사』 시리즈는 서구학계에서 활동한, 즉 서구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서구의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며 연구 결과를 서구권 언어로 발표하는, 학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제 6권의 저자들 역시 모두 유럽과 미국학계 출신 학자들이다.

“정복왕조”(Dynasties of Conquest)는 비트포겔(Karl Wittfogel)이 거란제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체계화한 개념으로 거란, 여진, 몽골, 만주 등 북방민족이 세운 제국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적합한 개념으로 널리 수용되었다.⁸ 비트포겔은 특히 중원을 지배한 여러 이민족들이 정복자로서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중시하면서 다민족 제국에서 발생한 문화적 변용과 이원적 통치체제에 주목하였다. 『중국사』 제 6권은 한족왕조에 비해 비교적 소홀시되었던 “외부정권”(alien regimes)이자 “변경국가”(border states)인 거란, 대하, 여진, 그리고 몽골제국을 접근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다. 거란, 대하, 금, 그

와 『宋史』 등에 보이는데 탕구트는 그들이 세운 왕조를 대하(大夏)[공식명칭은 한자로 “백고대하(白高大夏국)”라고 하였기에 이 논문에서는 탕구트 왕국의 국호로 “대하”를 사용하였다.

- 6 『중국사』 제 6권은 출간된 지 4년 후에 중국어 번역본이 “본고장” 중국에서 출판되었다(傅海波, 崔瑞德 编, 1998, 『剑桥中国辽夏金元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7 처음에는 총 6권으로 기획되었지만 분량이 늘어나 15권(권당 1책, 제 5권과 9권은 각 2책)으로 늘어났고 제 2권과 4권을 제외하고 모두 출간되었다. 춘추전국시대 등 진나라 이전 고대사의 편찬은 따로 진행되어 1999년 출간되었다(Loewe, Michael and Edward L. Shaughnessy, eds.,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8 Wittfogel, Karl and Feng Chia-sheng, 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의 “introduction,” pp. 1-32 참조.

리고 몽골제국의 흥기와 증원 정복, 다민족·다언어·다문화 제국을 통치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통치체제와 제도를 제국이 당면하였던 국제질서, 사회체제, 경제적 변화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성과를 정리하여 열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복왕조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이론적 틀을 제공하면서 토론의 장을 열었다고 높이 평가되었다. 이 비평논문에서는 『중국사』 제 6권에 보이는 서구학계의 시각과 그 문제점을 간단히 검토하면서 새로운 정복왕조사 서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중국사』 제 6권의 집필진과 주요 내용

『중국사』 제 6권은 총 37개의 표와 지도, 거란, 서하, 금, 원 황실 세계도, 각 왕조의 연호와 수도 위치를 표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 3장까지 각 장마다 하나의 왕조(거란, 서하, 금)를 다루었던 반면, 마지막 6개 장(제5장~9장)과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은 원(몽골제국)시기를 조명하는데 이는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던 세계제국 몽골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편집자 프랑케(Herbert Franke, 1914~2011)는 쾰른대학(Universität zu Köln), 본대학(Universität Bonn), 그리고 베를린대학(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에서 수학하여 법학박사(1937)와 철학박사(1947)학위를 받았고 뮌헨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에 재직하면서 여진과 몽골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⁹ 또 다른 편집자인 트위쳇(Denis Twitchett, 1925~2006)은 런던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당나라 시대를 전공하였고 1968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 프린스턴대학 (Princeton University)에서 활동하였다.¹⁰ 두 공동 편집자가 독일과

9 대표 논문으로는 Franke, Herbert, 1975, "Chinese texts on the Jurchen (I): A Translation of the Jurchen Monograph in the *San-ch'ao pei-meng hui-pien*." *Zentralasiatische Studien* 9, Franke, Herbert, 1978, "Chinese texts on the Jurchen (II): A Translation of Chapter One of the *Chin-shih*." *Zentralasiatische Studien* 12, Franke, Herbert, 1970, "Treaties between Sung and Chin." *Études Song/Sung Studies*, series 1 등이 있다.

10 대표 저서는 Twitchett, Denis, 1963, *Financial Administration under the T'ang Dynas-*

영국의 유럽학계 출신이라는 사실도 흥미롭지만 이는 20세기 후반까지 북미학계에서는 정복왕조를 연구한 학자들이 극소수였음을 보여주며 아직도 이 분야 전공자들은 몽골제국사를 제외하고는 한, 당, 송, 명 등 한족왕조 연구자들에 비해 아직도 현저하게 작은 규모에 머물고 있다. 편집자들은 책의 서론(Introduction)에서 거란, 금, 대하와 몽골제국 시기를 관통하는 “변경”(the frontier), “외부인”(foreigners), “다국체제”(multistate system), “맹약관계”(treaty relations), “정권의 유형”(modes of government), 그리고 “다중언어성”(multilinguality) 등 여러 핵심 개념을 정의하였다.

1장 “The Liao”(거란)는 편집자 트위철티와 독일 학자 티에제(Klaus-Peter Tietze)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는데 전통 사료인 『요사』와 거란사 연구의 대가 Karl Wittfogel과 Feng Chia-sheng의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1949)의 내용을 토대로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제 2장 “The Hsi Hsia”(서하)를 저술한 던넬(Ruth Dunnell)은 대하를 연구하는 극소수 학자 중 하나로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1983)를 받았으며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더불어 대외관계, 경제구조,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다.¹¹ 편집자 프랑케가 저술한 제 3장 “The Chin Dynasty”(금왕조)는 거란과 대하의 역사에 비해 다양하고 충실한 서술이 돋보인다. 정치사 외에도 정치제도, 민족 구성, 사회구조, 경제상황, 지성사와 종교 등을 다루었으며 특히 문화변용(acculturation)과 한화(sinicization),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ty, Cambridge University Press와 Twitchett, Denis, 1983, *Printing and Publishing in Medieval China*, New York: Beil, 그리고 Twitchett, Denis, 1992, *The Writing of Official History Under the T'ang*,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다.

11 대표 저서로 Dunnell, Ruth and Peter Stearns, 2010, *Chinggis Khan, World Conqueror*, Longman과 Dunnell, Ruth, 1996,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가 있다.

제 4장에서 7장까지는 몽골제국을 시대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4장 “The Rise of the Mongolian Empire and Mongolian Rule in North China” (몽골제국의 흥기와 북중국 통치)는 몽골제국사 전공자 알슨(Thomas Allsen)이 집필하였는데 테무진의 탄생에서 명케칸까지 정치 제도의 발전과 역할, 그리고 사회와 경제사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고 특히 중원 북부 지역 통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 5장 “The Reign of Khubilai Khan” (쿠빌라이의 치세)는 로사비(Morris Rossabi)가 쿠빌라이의 전기를 다룬 본인의 저서를¹² 토대로 몽골제국 전성기의 사회, 경제, 종교와 문화를 서술하였다. 제 6장 “Mid-Yüan Politics”(원 중기의 정치사)의 저자 소계경(蕭啟慶, Hsiao Ch'i-Ch'ing)은 대만국립대학 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학의 저명한 몽골사 전공자 Francis W. Cleaves교수의 지도아래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üan Dynasty* (元代軍事制度)로 1969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집필된 중 유일하게 동아시아 학계에서 활동하였다. 싱가포르국립대학(1974~1994)과 대만 국립청화대학(國立清華大學)에서 재직하였으며 2000년에는 대만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원사(院士)로 선출되기도 하였는데 주요 저서는 모두 중국어로 출판되었다.¹³ 소계경은 1294년에서 1332년, 즉 테무르(成宗, Temur Khaghan, 1294-1307), 카이산(武宗, Khaishan, 1307-1311), 아유르바와다(仁宗, Ayurbawada Khaghan, 1311-1320), 시데발라(英宗, Shidebala Khaghan, 1320-1323), 예순테무르(泰定帝, Yesun Temur Khaghan(1323-1328), 그리고 투테무르(文宗, Tugh Temur, 1328- 1332)의 칸들의 시대를 다루었는데 제국의 통치 제도와 이념이 한족 전통과 제도의 영향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고 빈번하게 발생한 파벌 투쟁의 원인을 몽골과 한족의

12 Rossabi, Morris, 1988, *Khubilai Khan: His Life and Tim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3 대표 저서로는 소계경, 1983, 『元代史新探』, 新文豐, 소계경, 1999, 『元朝史新論』, 允晨文化, 소계경, 2007, 『內北國而外中國: 蒙元史研究』, 中華書局, 소계경, 2008, 『元代的族群文化與科舉』, 聯經出版公司, 소계경, 2012, 『元代進士輯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소계경, 2012, 『九州四海風雅同: 元代多族土人圈的形成與發展』, 聯經出版公司 등을 꼽을 수 있다.

엘리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대칸 권력이 쇠퇴한 현상에서 찾았다. 제 7장 “Shun-ti and the End of Yüan Rule in China” (순제와 몽골의 중원 통치 종말)은 토곤 테무르칸(Toghon Temur), 즉 순제(1333-1368) 시기 정치사를 다루었으며 몽골제국이 중원을 상실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칸의 지도력 부재, 홍수와 가뭄 등 자연 재해, 그리고 새로운 사상의 등장 등을 지목하였다.¹⁴

제 8장과 9장은 몽골제국 전 시기를 대상으로 지배 구조와 사회 제도를 조명하였다. 8장 “The Yüan Government and Society” (원의 통치기구와 사회)의 저자 엔디콧-웨스트(Elizabeth Endicott-West)는¹⁵ 원의 통치 기구와 조직을 문, 무, 감찰, 그리고 황실의 기구로 나누어 접근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관계를 분석하여 몽골제국이 그 제도적 장치와 달리 실제로는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나라의 사회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족을 제외한 몽골과 기타 부족의 엘리트 계층을 다루고 있다. 제 9장 “Chinese Society Under Mongol Rule, 1215-1368”(몽골 통치시기의 중국(한족 사회)의 저자 모트(Frederick W. Mote, 1922~2005)는 1948년 중국의 남경대학교를 졸업하고 1954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도종의(陶宗儀)의 『輟耕錄』 연구로 박사학위를 획득하였고 프린스턴대학에 재직하면서 『중국사』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⁶ 모트는 몽골 통치하 중원에서 발생한 사회 구성과 민족 관계의 변화를 민족등급제와 호적을 통한 세습제

14 제 7장의 저자 다디스(John Dardess)의 대표저서로는 Dardess, John, 1973, *Conquerors and Confucians: Aspects of Political Change in Late Yua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Dardess, John, 1983, *Confucianism and Autocracy: Professional Elites in the Founding of the Ming Dynas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그리고 Dardess, John, 1997, *A Ming Society: T'ai-Ho County, Kiangsi, Fourteenth to Seventeen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가 있다.

15 대표 저서는 Endicott-West, Elizabeth, 1989, *Mongolian Rule in China: Local Administration in the Yuan Dynasty*, Harvard University Press이다.

16 대표 저서로는 Mote, Frederick, 1971,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a*, Knopf와 Mote, Frederick, 1999, *Imperial China: 900-1800*, Harvard University Press를 꼽을 수 있다.

도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기존 송과 금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였던 몽골제국의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몽골과 색목인 지배층이 정치와 군사적 권력을 통해 한족을 통치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월한” 한족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III. “중국사”의 정복왕조와 동아시아 국제질서

『중국사』 제 6권의 구성을 보면 먼저 “중국사”의 범주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는데 즉 “정복왕조”의 역사가 과연 “중국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중국”(China)이라는 용어는 “한족(漢族)” 혹은 “중원(中原)” 혹은 “한지(漢地)” 등 여러 의미가 종종 중첩되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렵고 “중국의 문화” 역시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혼합된 결과물이었기에 그 의미를 한족의 전통 문화와 그 핵심 가치관에 국한하여도 “중국”이라는 정치적·문화적·공간적 실체는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였다.¹⁷ 스탠든(Naomi Standen)은 근대 “중국”의 개념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개념이야말로 올바른 역사인식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다.¹⁸ 물론 『중국사』 제 6권의 정복왕조시기에 정치적·지리적·민족적·이념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중국”과 현대적 개념의 “[중화민족]”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거란, 대하, 금, 그리고 몽골제국은 어떠한 기준으로 『중국사』 제 6권에 포함되었을까? 『중국사』 시리즈는 본래 시대별로 편성되어 하나의 왕

17 Dardess, John W., 2003, “Did the Mongols Matter? Territory, Power, and the Intelligentsia in China from the Northern Song to the Early Ming,” in Paul J.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2-22.

18 Standen, Naomi, 1999,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in *Frontiers in Question: Eurasian Borderlands, 700-1700*, ed. by Daniel Powers and Naomi Standen. London: MacMillan; Standen, Naomi, 2007,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 31.

조를 한 권(卷)에 서술하였는데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400여 년간 존재한 4개의 정복왕조를 한 권으로 묶으면서도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한족정권인 오대, 송, 그리고 남송을 분리하여 따로 서술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복왕조와 한족왕조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편의를 위한 방편이었을까? 시대별로 하여 거란과 송, 그리고 금과 남송시기를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또 대하의 역사는 정통 왕조사로 인정받지 못하여 몽골제국이 이전 왕조들의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단지 『遼史』, 『宋史』, 『金史』의 「외국열전」(列傳)에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해지거나 제 6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주변에 위치하며 한족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티베트와 위구르제국 등은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서 따로 장을 세워 서술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중국사”의 한 시대로 인정하지 않은 듯하다. 대신 그들의 역사는 『케임브리지 중국사』가 아닌 『케임브리지 내륙아시아 초기역사』(*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에 포함되었다.¹⁹ 결국 『중국사』 제 6권의 집필자들은 “중원”이라는 역사적 공간에 대한 정복과 통치 여부를 “중국사”의 범주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원을 정복한 외부왕조들에게 “중국”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이 있었을까? 만일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편 집자들은 정복왕조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족 세계”(한족 전통의 세계질서)의 틀에 편입되면서 “중국사”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공식 사절단과 공문서를 통한 외교적 교류는 정복국가들이 “중국(즉 한족의

19 위구르와 티베트의 역사는 1990년에 출간된 『케임브리지 내륙아시아 초기역사』(Sinor, Denis, 1990.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내륙아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거란과 여진을 하나로 묶어 서술하였는데 그 저자가 바로 『중국사』 6권의 편집자이자 3장 금 왕조를 집필한 프랑케교수이다. 『중국사』가 요과 금 왕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인 반면 『내륙아시아 초기역사』는 왕조 건국 이전과 멸망 이후 시대를 관통하는 거란과 여진 부족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모두 다루고 있다.

세계”(“the Chinese world”)로 흡수되는 과정을 강화가속화하였음이 분명하다. 외교적 절차는 한족의 선례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외교의 언어(문자)도 한문이였다. 거란, 금, 혹은 서하(대해)가 송에 보낸 문헌을 그들 고유의 언어 혹은 문자로 기록하거나 한문과 병기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정복왕조가 그들의 종묘에 올린 서서(誓書)를 그들 고유의 언어로 작성하였는지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다언어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의 공통어가 한족의 언어(와 문자)였다고 추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 [There can be no doubt that diplomatic intercourse through embassies and correspondence strengthened and accelerated the absorption of the conquest states into the Chinese world. Not only was the procedure modeled on Chinese precedents: the diplomatic language was Chinese. It does not seem that any letter from Liao or Chin or Hsi Hsia to the Sung was ever written in the native language and script or that a parallel text to the Chinese version was drafted in their own language. We also do not know whether the oathletters of the northern states that had to be ritually deposited in their own ancestral temples were written in the native language. It seems safe to assume that however multilingual the states might have been, the diplomatic lingua franca throughout continental East Asia was Chinese].²⁰

결국 정복왕조들이 한족의 전통과 제도적 틀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중국”이라는 역사적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편집자들은 “원의 중국 재통일”(reunification of China under the Yüan)²¹ 이전 시기를 “맹약의 시대”(an age of treaties)로 정의하였는데 거란, 대하, 금은 한족 왕조 송과 남송과 더불어 “동등한 국가 중 하나”(China among Equals)로 “다

20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20.

21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18.

국체제”(Multistate System)의 “맹약관계”(Treaty Relations)를 형성하고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사』 제 6권의 출간 이전에도 “조공체제” 이론의 문화론적 편견과 역사적 실체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하고 한족 전통의 제도와 공간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국제질서를 규명하고자 하였던 서구학계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정복왕조 시기인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는 세력균형에 의해 성립·유지된 다원적 국제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²² 또 바필드(Thomas Barfield)는 북방민족과 한족왕조의 관계를 기존의 “교역 혹은 약탈”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증원, 초원(몽골지역), 그리고 만주라는 세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순환과정에 주목하여 접근하였다.²³ 그리고 레자드(Gari K. Ledyard)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원-만주-한국의 삼각관계를 통해 한족왕조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역사적 순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²⁴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군사적 세력균형으로 유지되었고 다양한 정치적 타협과 문화적 교류의 산물이었기에 증원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만주, 한반도, 그리고 초원과 중앙유라시아 등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다원적·다국체제(pluralistic and multi-state)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제 6권의 집필자들은 정복왕조와 한족왕조 사이에 형성된 “다국체제”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고려 등 소위 “주변”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조

22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25-29.

23 Barfield, Thomas, 1989,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Oxford, UK: Blackwell, pp. 167-177.

24 Ledyard, Gari K., 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313-353. 김한규도 레자드와 유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만주를 증원이나 한반도의 “변방”이 아니라 “요동”이라는 독자적 체계의 “역사공동체”로 설정하였다(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진 “중심”(중원)과 “주변”의 공식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정복왕조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재조명은 『중국사』 제 6권에서 간과하였던 중원 외부 즉 “주변”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중국사』 제 6권의 편집자들은 거란, 여진, 탕구트, 몽골이 세운 제국을 단순히 중원의 농경·정착 문명의 한족정권과 대비되는 유목국가로만 볼 수 없으며 북방민족의 명칭이 어느 특정 “단일 집단”(homogeneous people)이 아니라 복합적인 현실(complex reality)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정복왕조들은 토착 부족문화(nativism)와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갈등, 다언어·다문화 체제 제국의 통치 문제, 권력의 개인화, 통치의 분열, 지식인 계층의 신분 하락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정복왕조의 군대는 다국적으로 구성되었고 많은 한족 병사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송과 북방 정복왕조의 전쟁 역시 단순히 부족(민족) 혹은 종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 내전의 특별한 현상”(a special form of Chinese civil war)이었다는 것이다.²⁵

하지만 정복왕조가 북방에서 흥기하였다는 사실은 “정복”이라는 역사적 현상은 북방민족의 전통과 역사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정복왕조 고유의 전통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요구되지만 이들이 중원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는 “중국사”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었고 중원에 세워진 왕조사에 초점을 맞춘 제 6권에 매우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거란, 여진, 탕구트, 몽골은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숲, 분지, 초원, 사막의 오아시스 등)에 적응하면서 통치방식, 다언어성, 문화변용, 세계관, 역사적 경험, 그리고 국가의 정책 목표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초원 유목문명의 몽골에 비해 만주에서 흥기한 여진과 거란은 분명

25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12.

혼합적 성격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중원지역과 관계를 맺었고 탕구트의 대하 역시 비교적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주변국가 특히 송나라와의 교역이 매우 중요하였다. 거란, 탕구트, 여진의 정복왕조들이 중원 한족의 전통과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수용한 사례와 대조적으로 몽골은 거란, 위구르, 중앙유라시아 이슬람, 티베트 등의 전통을 널리 차용하였다.

IV. 정복왕조의 정체성: “한화”와 불교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화”는 종종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한족 전통의 제도나 문화를 채택하는 모든 현상을 한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화”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 용어에 내재된 “한족,” “중국,” 혹은 “중국문화”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면서 “한화”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역사현상에서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무시하였다. 한족 왕조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채택하고 실제 어느 정도의 문화의 수용과 동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한화”로 규정할 수 없다. 제 6권의 집필자들은 “우월한 문명과 미개의 대립”(confrontation between high civilization and barbarism)이라는 기존 시각으로는 정복왕조와 중원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²⁶ 정복왕조 지배층이 한족 문명의 매력에 심취하였던 현상 역시 부족 고유 전통의 가치관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부족체제와 제도를 대신하여 중원의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제도를 수용한 사례를 북방민족의 정체성이 동요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복왕조가 “우월한” 한족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방민족이 다수의 한족과는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에 주목하였다. 특히 부족체제에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외국 문자(즉 중원의 한문)를 차용하지 않고

26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13.

새로 그들 고유의 문자를 창제하여 제국의 언어를 한문과 동등한 위치의 기록언어로 승격시킨 사실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거란, 대하, 여진과 몽골은 제국을 운영하면서 한문을 제국의 문자로 그대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한족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그리고 차별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정복왕조들이 한족 제도와 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현상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한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소수의 한족만을 통치한 “작은 제국” 대하와 절대 다수의 한족을 통치한 “세계제국” 몽골의 “한화” (즉 한족 제도의 수용)를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한화”가 단지 한족들을 통치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던넬은 대하의 “한화”가 탕구크 부족체제의 분산된 권력을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해석하였다. 나아가 몽골은 증원만이 아니라 위구르와 티벳, 그리고 다양한 초원지역의 전통을 필요에 따라 수용하였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에 가장 높은 권위와 지위를 부여하였다. 쿠빌라이가 “원” 제국을 선포하기 이전에 몽골제국은 증원의 북부를 통치한 거란과 금은 물론 위구르와 대하, 그리고 중앙유라시아의 여러 전통과 제도를 절충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국 “중국”의 세계관은 한족과 타민족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이었고, “한화”의 틀로는 한족왕조와 정복왕조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²⁷

“한화” 그리고 유교 등 증원 한족의 문화와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정복왕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불교에 대한 『중국사』 제 6권의 관심과 서술은 매우 소략하다. 정복왕조시기 불교의 영향력이 미치는 문화권은 초원(유목)과 농경(정착) 문명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외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

27 Rawski, Evelyn, 1996,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 pp. 829-50.

작용하였으며 왕실과 엘리트계층의 종교로 크게 흥성하면서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제국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복왕조의 군주들은 스스로를 보살의 화신 혹은 전륜성왕(Cakravartin)이나 “부처칸”(Burqan Khan)으로 자칭하며 불교를 후대하고 널리 전파하였다.²⁸ 그러나 제 6권에서 몽골제국 시기에 한족들에 대한 통치에 유용하였던 유교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에 비해 제국의 정체성과 정치이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교에 대한 고찰의 부재가 아쉽다.

정복왕조에 미친 불교의 영향력은 소략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중국사』 제 6권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수보살의 도량(道場)으로 유명한 산서성 오대산(五臺山)이라는 불교적 공간을 통해 10-12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 최근 연구 성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오대산은 이미 5세기부터 중요한 불교성지였으며 7세기에 이르러 동아시아 전역과 티베트, 그리고 인도의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동아시아 여러 전통이 교차한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었다. 오대산 문수신앙은 특히 몽골, 티베트 불교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송나라가 오대산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자 대하 조정은 11세기에 따로 경내에 별도의 “오대산”을 조성하였고,³⁰ 거란과 몽골 조정도 수도 주변에 오대산의 “복제”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다.³¹ 북방민족이 세운 정복왕조의 전통에서 오대산 문수 신앙에 의거한 정통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불교적 전통이 당시 정복왕조가 참여하였던 다원적 국제질서에 어떠한 모습으

-
- 28 Wittfogel, Karl and Feng Chia-sheng, 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의 “introduction,” pp. 291-309.
- 29 Debreczeny, Karl, 2011, “Wutaishan: Pilgrimage to Five Peak Mounta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6, pp. 1-133.
- 30 Dunnell, Ruth, 1996,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35-36.
- 31 Charleux, Isabelle, 2011, “Mongol Pilgrimages to Wutai Shan in the Late Qing Dynast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no. 6.

로 반영되었는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이지만 제 6권에서 오대산은 단 한 차례 1130년대 인도에서 온 승려가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³²

V. 『중국사』 제 6권의 한국사 인식

1990년대 『중국사』 제 6권의 집필진, 그리고 당시 대다수 중국사 전공의 서구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사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대체로 중국과 일본학계의 성과와 시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서구의 대학에서 중국사 연구자에게 어느 정도의 일본어와 일본사에 대한 지식이 필수였던 반면 한국 등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그 결과 한족중심적 혹은 일본중심적 역사관이 투영되면서 기존의 왜곡된 시각과 오류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구에서 활동하는 중국사와 일본사 전공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선입관을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동시에 한국사는 기존의 서구중심주의에서 파생된 한족중심과 일본중심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³³

『중국사』 제 6권 집필자들은 1차 한문 사료는 물론 현대 중국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중국과 일본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대폭 인용되었다. 하지만 한국어 독해 능력이 없었기에 단지 서구에서 활동하는 헨톤(William Henthorn)과³⁴ 로저스(Michael C. Rogers)의 극

32 Franke, Herbert, 1994, “The Chin Dynasty,”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314.

33 다나카(Stefan Tanaka)는 그의 저서 Tanaka, Stefan, 1995,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일본학자들이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모방하여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타자화한 과정을 기술하였다.

34 Henthorn, William E., 1963, *Korea: The Mongol Invasions*, Leiden: E. J. Brill.

소수 학자들의 몇 영문 논문과 저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한국학자의 저서는 단 2 차례 인용에 그치는데 그마저도 한우근과 이기백의 저술한 한국사 개설서의 영문 번역본이었다.³⁵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10~14세기 정복왕조 시기에 “외부”의 시각을 제공하고 기록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인 『고려사』 등 한문으로 기록된 한국의 1차 사료 역시 거의 활용되지 않은 점이다.

그런데 집필자들이 한국사 전통 사료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제 6권의 부록 “사료 소개” (Bibliographical Essays)에서는 『고려사』의 중요성을 두 번이나 강조하였다. 『고려사』는 “여진과 고려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완전히 독자적인 사료”(A completely independent source of great importance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Jurchen and the Korean state of Koryŏ)이자 “원제국과 고려 (중원과 빈번하며 오랜 접촉을 하였던 지역 (즉 고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필수사료”(an indispensable record of the Yüan’s relations with a land that had frequent and extended contacts with China)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본문에서는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인용에 그치고 있다.³⁶

한국학계의 성과와 사료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중국사』 제 6권의 서술은 고려가 한족의 문화를 추종하면서 한족중심적 세계질서에 “순응”하고 “사대”하였다는 기존의 선입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트위철헤트는 “10세기 경에 이르면 ‘한국인’(즉 고려인)들은 모든 계층에서 중원 한족문화의 영향

35 Han Woo-keun (Han U-gun), 1971, *The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Lee Kyung-shik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Yi Ki-baik, 1984, *A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nd Edward J. Shultz,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36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p. 437, 682, 704.

에 철저히 젖어 있었으며 거란을 혐오하고 증오하며 두려워하였다”(By the tenth century the Koreans were thoroughly imbued with Chinese cultural influence at all levels and hated, despised, and feared the Khitan)고 하면서도 1세기 후인 1030년대에 “고려는 거란의 충성스러운 제후국으로 남아 양국사이에 평화가 드리워졌다”(Koryŏ remained a loyal vassal, and peace prevailed between the two states)고 묘사하였다.³⁷ 그러나 그 1세기 동안 정복왕조에 대한 고려의 시각과 전략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집필자들은 “한족(전통)의 보편주의”(Chinese Universalism)을 신봉한 고려 통치자들의 지위가 “한족 세계질서의 틀에서 유교적 도덕과 지식의 관리자로서 인정된 역할”(their acknowledged role as custodians of (Confucian) virtue and wisdo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hinese world order)에 있었고 정복왕조와 한족왕조의 연호를 시행하고 조공하였던 기록을 근거로 고려가 “다국적 [국제관계의] 현실”(multi-state reality)로 부터 가리어져 있었다고 한 로저스(Michael Rogers)의³⁸ 주장을 그대로

37 Twitchett, Denis and Klaus-Peter Tietze, 1994, “The Liao,”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p. 103, 112.

38 중국 고대와 중세를 연구한 로저스(Michael C. Rogers)는 당시 서구학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려시대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대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Rogers, Michael C., 1958, “Sung-Koryŏ Relations: Some Inhibiting Factors,” *Oriens* 11, pp. 194-202; Rogers, Michael C., 1959, “Factionalism and Koryŏ Policy under the Northern Su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9, pp. 16-25; Rogers, Michael C., 1959, “Sukchong of Koryŏ: His Accession and His Relations with Liao,” *T’oung Pao* 47, pp. 30-42; Rogers, Michael C., 1959, “Koryŏ’s Military Dictatorship and Its Relations with Chin,” *T’oung Pao* 47, pp. 43-62; Rogers, Michael C., 1961, “Some Kings of Koryŏ as Registered in Chinese Work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1.4, pp. 415-422; Rogers, Michael C., 1961, “The Regularization of Koryŏ-Chin Relations (1116-1131),” *Central Asiatic Journal* 6, pp. 51-84; Rogers, Michael C., 1977, “The Late Chin Debates on Dynastic Legitimacy,” *Sung Studies Newsletter* 13, pp. 57-66; Rogers, Michael C., 1978,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ŏ,” *Korean Studies Forum* 4, pp. 1-22; Rogers, Michael C., 1982, “P’yŏnnyŏn T’ongnok: The Foundation Legend of the Koryŏ Stat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 pp. 3-72; Rogers, Michael C., 1983,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The Impact of Liao and Chin on Koryŏ,”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51-172.

수용하고 있는 듯하다.³⁹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조공체제의 이념에 치중하여 고려의 정치와 경제적 동기, 문화 교류, 안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고려가 시행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전략에 대한 고찰의 부재를 보여준다. 다행이도 최근 10여 년간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몇 서구학자들이 한국의 전통 사료와 한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⁴⁰

VI. 탈“중국”의 정복왕조사

중국학계는 정복왕조의 유물과 역사적 공간 대부분을 독점하면서 북방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복왕조는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으로 인식되었고 북방민족의 역사는 “중국사”의 주변부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거란, 탕구트, 여진, 몽골의 역사가 과연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이자 당-송-명으로 이어지는 한족 왕조사 서술의 끝가지에 불과한 것인가? 정복왕조의 역사를 “중국사”의 한 시대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을까?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의 세계사 시리즈는 특정 지역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사이자 개설사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료의 제한과 축적된 연구가 부족하였던 당시 서구 학계의 현실에서 『중국사』 제 6권의 내용이 대부분 정치사, 특히 왕위계승과 권력투쟁, 대외관계에 치중되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서구학계 최고의 학자들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였던 『중국사』 제 6권은 출간 이후 정복왕조사 연구의 방향과 미래 과제를 제시하면

39 Rogers, Michael C., 1978,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pp. 9-10.

40 서구 학계의 정복왕조사 연구에서 한국의 전통 역사자료와 한국학자들의 성과를 적극 활용한 대표적 저서로 Robinson, David M., 2009,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Harvard University Press 를 꼽을 수 있다.

서 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중국사』 제 6권의 필자들은 한족중심적, 그리고 단선적 시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고 특히 모트(Mote)는 몽골 원제국을 중국사의 한 시대로만 인식하는 학자들이 종종 원대의 “중국”은 실제 몽골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⁴¹

그러나 『중국사』 제 6권의 편집자들은 몽골제국을 다녀간 유럽에서 온 여행자 마르코 폴로가 당시 제국의 북쪽과 남쪽을 전혀 다른 나라로 인식한 것을 그가 “중국의 기본적 통합체”(the basic unity of China)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결과로 보았는데, 어찌면 그들이야말로 거란, 대하, 여진, 몽골의 정복 왕조들을 “우리가 오늘날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통합체”(greater unity that we now call China)⁴²의 틀에 억지로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북방 초원과 만주의 전통을 계승한 다민족제국 정복왕조의 통치아래 있던 북방을 남송의 옛 강남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였던 폴로가 과연 현실을 착각하였던 것이었을까? 여기서 북방과 남방, 그리고 “중국”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특히 “한화”와 반대로 진행된 “북방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석의 부재가 매우 아쉽다.

『중국사』 제 6권은 기존의 한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고 어느 정도 정복왕조와 북방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중국사”의 틀 안에서 서술하였다. 중국의 역사를 단선적(單線的) 발전의 틀 안에서 그리고 “한화”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접근할 때 북방민족의 역사를 종종 왜곡된다. 즉 북방민족과 정복왕조를 “중국”의 “소수민족” 그리고 역대 왕조사의 한 시대적 단계로서만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결국 거란, 탕구

41 Mote, Frederick, 1994, “Chinese Society under Mongol Rule, 1215-1368,”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625.

42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21.

트, 여진, 몽골족을 단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소수민족”으로만 인식하고자 하는 현재주의적 역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복왕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시대착오적 역사적 경계에 갇힌 기존의 정복왕조사 연구와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의 요대, 하대, 금대, 원대가 아닌 세계사의 관점에서 접근한 거란, 탕구트, 여진, 그리고 몽골 중심의 역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동아시아 언어

-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 윤영인 외 7인, 2010,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傅海波, 崔瑞德 编, 1998, 『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蕭啟慶, 1983, 『元代史新探』, 新文豐
- 蕭啟慶, 1999, 『元朝史新論』, 允晨文化
- 蕭啟慶, 2007, 『內北國而外中國: 蒙元史研究』, 中華書局
- 蕭啟慶, 2008, 『元代的族群文化與科舉』, 聯經出版公司
- 蕭啟慶, 2012, 『元代進士輯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蕭啟慶, 2012, 『九州四海風雅同: 元代多族土人圈的形成與發展』, 聯經出版公司
- 刘浦江, 2001, 「辽朝国号考释」, 『历史研究』, 6期
- 刘凤翥, 2006, 「从契丹文字的解读谈辽代契丹语中的双国号—兼论“哈喇契丹”」, 『东北史研究』, 第2期

2. 서구 언어

- Barfield, Thomas, 1989,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Oxford, UK: Blackwell
- Biran, Michal,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Between China and the Islamic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rleux, Isabelle, 2011, “Mongol Pilgrimages to Wutai Shan in the Late Qing Dynast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no. 6
- Dardess, John W. 2003. “Did the Mongols Matter? Territory, Power, and the Intelligentsia in China from the Northern Song to the Early Ming,” in Paul J.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Dardess, John, 1973, *Conquerors and Confucians: Aspects of Political Change in Late Yua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 Dardess, John, 1983, *Confucianism and Autocracy: Professional Elites in the Founding of the Ming Dynas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ardess, John, 1997, *A Ming Society: T'ai-Ho County, Kiangsi, Fourteenth to Seventeen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breczeny, Karl, 2011, “Wutaishan: Pilgrimage to Five Peak Mounta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6
- Dunnell, Ruth and Peter Stearns, 2010, *Chinggis Khan, World Conqueror*, Longman
- Dunnell, Ruth, 1996,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Endicott-West, Elizabeth, 1989, *Mongolian Rule in China: Local Administration in the Yuan Dynasty*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 Woo-keun (Han U-gun), 1971, *The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Lee Kyung-shik,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 Henthorn, William E., 1963, *Korea: The Mongol Invasions*, Leiden: E. J. Brill
-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e, Herbert, 1970, “Treaties between Sung and Chin.” *Études Song/Sung Studies*, series 1
- Franke, Herbert, 1975, “Chinese texts on the Jurchen (I): A Translation of the Jurchen Monograph in the *San-ch'ao pei-meng hui-pien*.” *Zentralasiatische Studien* 9
- Franke, Herbert, 1978, “Chinese texts on the Jurchen (II): A Translation of Chapter One of the *Chin-shih*.” *Zentralasiatische Studien* 12
- Ledyard, Gari K., 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ewe, Michael and Edward L. Shaughnessy,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te, Frederick, 1971,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a*, Knopf
- Mote, Frederick, 1999, *Imperial China: 900-1800*, Harvard University Press
- Naomi Standen, 1999,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in *Frontiers in Question: Eurasian Borderlands, 700-1700*, ed. by Daniel Powers and Naomi Standen, London: MacMillan
- Naomi Standen, 2007,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awski, Evelyn, 1996,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
- Robinson, David M., 2009, *Empire's Twilight: Northeast Asia Under the Mongol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gers, Michael C., 1958, "Sung-Koryŏ Relations: Some Inhibiting Factors." *Oriens* 11
- Rogers, Michael C., 1959, "Factionalism and Koryŏ Policy under the Northern Su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9
- Rogers, Michael C., 1959, "Koryŏ's Military Dictatorship and Its Relations with Chin." *T'oung Pao* 47
- Rogers, Michael C., 1959, "Sukchong of Koryŏ: His Accession and His Relations with Liao," *T'oung Pao* 47
- Rogers, Michael C., 1961, "Some Kings of Koryŏ as Registered in Chinese Work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1.4
- Rogers, Michael C., 1961, "The Regularization of Koryŏ-Chin Relations (1116-1131)," *Central Asiatic Journal* 6
- Rogers, Michael C., 1977, "The Late Chin Debates on Dynastic Legitimacy," *Sung Studies Newsletter* 13
- Rogers, Michael C., 1978,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ŏ," *Korean Studies Forum* 4

- Rogers, Michael C., 1982, “P’yŏnnyŏn T’ongnok: The Foundation Legend of the Koryŏ Stat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
- Rogers, Michael C., 1983,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The Impact of Liao and Chin on Koryŏ,”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sabi, Morris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sabi, Morris, 1988, *Khubilai Khan: His Life and Tim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nor, Denis, 1990,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aka, Stefan, 1995,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witchett, Denis, 1963, *Financial Administration under the T’ang Dynas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witchett, Denis, 1983, *Printing and Publishing in Medieval China*, New York: Beil
- Twitchett, Denis, 1992, *The Writing of Official History Under the T’a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ttfogel, Karl and Feng Chia-sheng, 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 Yi Ki-baik, 1984, *A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nd Edward J. Shultz,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투고일: 2020년 9월 23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9일

▪ Abstract ▪

Research on the Conquest Dynasties from the 10th to the 14th
century China by the Western Scholarship

: A Reassessment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sand Border States, 907-1368*

Yun, Peter (Yongsan University)

Since its publication in 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has been considered the classic work on conquest dynasties by the Western scholarship. Volume 6 provided comprehensive coverage of often neglected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While editors and writers were critical of overt sinocentric perspectives, the volume continued to place the conquest dynasties firmly within “Chinese history.” Such unilinear and “sinicization” framework have often distorted history of “alien regimes” established by northern Asiatic peoples. In other words, Khitans, Jurchens, Tanguts, and Mongols were relegated to the status of “minority peoples” of China, and the states they founded gained historical significance only as one stage in the continuous dynastic succession scheme within Chinese history. Thus, new and fresh perspectives on the conquest dynasties are needed to overcome such presentist tendencies. Through reexamination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e 6 of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we may look for new clues to break out of antiquated notions about Khitan Liao, Jurchen Jin, Tangut Xia, and Mongol Yuan periods trapped in the anachronistic historical concept of “China.”

Keywords: *Cambridge History of China* , vol. 6, Conquest Dynasties, Khitan Liao, Jurchen Jin, Tangut Xia, Mongol Yuan, sinicization